

#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2023년 7월

## 전문가 기고

전세계 주요 에너지 기업과 ESG 경영

## 주요 이슈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국내외 가이드라인 및 정책

## ESG 동향

국내외 주요 ESG 뉴스

## 주요 통계



# 전세계 주요 에너지 기업과 ESG 경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은도 탄소중립산업기술연구부 수석연구원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첫 글자를 딴 'ESG'는 글로벌 기업의 화두가 되고 있다. ESG는 단순한 경영 구호가 아니라 금융, 세제 등 기업의 투자 및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 정책수립의 기준<sup>1)</sup>이 되고 있다. ESG 경영의 첫 시작인 '환경'에 대한 인식은 과거<sup>2)</sup>와 다르게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환경오염 저감, 자원재활용 기술로 대표되며 특히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에너지 산업에서 ESG는 각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2022년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에너지 기업은 26개국 77개 기업으로 500대 기업 매출액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4%로 총 21개 섹터 중 금융과 더불어 가장 크다. 에너지 분야 전체 매출액의 45.5%를 중국(30.8%)과 미국(14.7%)이 차지했으며 이어 영국(7.4%), 프랑스(5.5%) 순이었으며, 한국은 2.3%를 차지하면서 13번째에 올랐다. 국가별 상위 500위 기업 수는 중국 18개, 미국 11개, 영국, 프랑스, 인도, 독일 각각 4개, 한국은 3개 기업<sup>3)</sup>이 순위에 올랐다. 에너지 분야를 5대 세부 산업<sup>4)</sup>으로 구분할 때 자원개발이 가장 수익성 높은 산업으로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11.1%로 나타나 에너지 분야 전체 이익율(6.6%)의 약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석유/가스 관련 자원개발 시장의 65%를 점유하는 Bp, Shell, Chevron, ExxonMobil 4대 메이저가 어떻게 ESG를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에 적극적인 유럽 기업(BP, Shell)들은 재생에너지 발전, 수소 등 청정기술로의 확장을 제시하고 있다<sup>5)</sup>. 반면 정권에 따라 기후변화 정책의 부침이 심한 미국기업(Chevron, ExxonMobil)은 공정배출 저감목표를 제시하는 수준으로 대응해 왔다.

에너지 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 발전사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독일 RWE는 2040년까지 화석연료 사업에서 완전히 벗어난 넷제로(Net zero)를 선언하였다. 영국의 Drax 그룹은 석탄 발전소를 바이오매스 전용 발전소로 전환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매년 1,200만톤 이상 감축하고 BECCS(Bio Energy 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을 통해 Carbon Negative 발전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미국의 IRA는 기후변화 대응과 공급망의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ESG 기반 투자 및 기업가치 평가를 국가별 이익을 한순간에 재편하거나 경쟁력을 확보하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 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소극적으로 보였던 미국의 2022년도 발

1) 우리나라도 ESG 관련 정책 및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2025년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기업의 ESG 공시가 의무화되며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도 확대될 예정이다  
2) 과거 기업들은 환경을 규제산업으로 인식하여 정부의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투자만을 해온 것이 일반적이었음  
3) SK(27위, 881억 달러), 한국전력(45위, 524억 달러), GS칼텍스(75위, 302억 달러)이며 순위 내 글로벌 기업 1개 당 평균 매출액은 953억 달러로 한국기업보다 1.7배 높은 수준임  
4) 5대 세부산업: 석유정제(30개사), 자원개발(19개사), 유틸리티(12개사), 에너지(12개사), 파이프라인(4개사)  
5) Shell은 기존 정유공장의 1/3을 매각하고 북해 해상풍력 사업에 7,500만 파운드를 투자하는 등 주력산업을 화석연료에서 친환경에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전량의 1/4이 재생에너지로 달성<sup>6)</sup>되었고, 한국, 중국, 일본에 빼앗긴 제철 산업을 다시 육성하기 위해 유럽에서 광범위한 수소환원 제철 연구<sup>7)</sup>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우리 기업들의 현실과 비교해 볼 때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사실이다.

2022년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린 77개 에너지 기업 중 2030년 목록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 당연하게도 석유/가스 자원개발 기업, 석유정제 기업, 화력 중심의 발전사는 순위 밖에 있을 것이며 무늬만 ESG 경영을 외치는 거대 에너지 사용 기업도 순위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류와 같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K-ESG 경영을 통해 앞으로 글로벌 500대 기업 순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

6) 2021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8.29%이며 작년말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당초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하였음  
7) 2016년부터 스웨덴 정부 주도로 3개 대표기업이 연합하여 화석연료 없는 전기 및 수소활용 혁신 제철공정(HYBRIT)을 개발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제철공정 온실가스 배출을 95% 이상 줄이기 위한 H2GreenSteel 프로젝트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중임

#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국내외 가이드라인 및 정책



지속가능경영원

## 1-1. 워싱의 정의

워싱이란, 기업의 친환경적 행위나 실천 노력을 과장하는 부정행위를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ESG워싱은 “그린워싱”으로, 친환경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인 척하는 행태를 의미한다. 이 외에도, 실제로는 문서상으로만 인권이나 사회적 책임경영을 다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블루워싱이나, 명확한 기준 없는 자산집계를 통한 몸집 부풀리기로 시장 선도적인 입지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임팩트워싱 등의 행태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ESG워싱이라 하면 “그린워싱”을 지칭하고 있으며, 현재도 그린워싱에 관련된 논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1-2. 그린워싱의 예시

2020년 이탈리아의 국영석유기업 에니(Eni)는 팜유 기반 연료 ‘디젤플러스’를 생산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되는 친환경 연료라고 홍보하였다. 하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디젤플러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고, 팜유 성분을 사용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디젤플러스는 친환경 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를 그린워싱으로 파악하고, 그린워싱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에니(Eni)에게 500만 유로(한화 약 68억)의 벌금을 부과하고 광고 집행 중단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

## 1-3. 그린워싱의 문제점

그린워싱 행위는 단순히 과대 과장광고 수준을 넘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여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문제행위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지속된다면 소비자와 투자자는 기업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수밖에 없고,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검증비용이 필수적으로 부과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만들어낸다. 더욱 큰 문제점은 그린워싱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이 되는 점이다. 현재의 ESG경영은 궁극적으로는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목표이자 철학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무시하는 그린워싱이 자행된다면, 친환경 기술 개발 등에 대한 투자 의욕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 달성을 요원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등 관련기관은 그린워싱은 사회적 책임경영을 무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를 벗어나는 중대한 문제 행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 제시 및 법령 제정을 통해 이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2-1. 그린워싱 근절을 위한 조치(가이드라인 및 법률)

### • 테라초이스, 그린워싱의 6가지 죄악

2009년 캐나다의 글로벌 친환경컨설팅 업체인 테라초이스(TerraChoice)는 그린워싱의 6가지 죄악들(북미 소비자 시장의 환경적 주장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그린워싱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써, 그린워싱으로 분류될 수 있는 6가지 금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상충효과 감추기”로, 작은 속성에 기초하여 환경친화적이라는 라벨링을 붙이는 행위이다. 제품 생산과정에서 유사제품보다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면서, 아주 작은 부분 재활용 요

01	상층 효과 감추기	작은 속성에 기초하여, 환경친화적 이미지 강조
02	증거 불충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 제시 불가
03	애매모호한 주장	애매한 용어 사용 등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 제시
04	관련성 없는 주장	친환경과 관련성이 없는 내용을 환경과 관련되게 주장
05	두가지 악 중 덜한것	안 좋은 것에 비해 조금 나은 수준정도임에도 친환경으로 주장
06	거짓말	사실이 아닌 점을 주장하는 행위
07	허위 라벨 부착	허위 라벨을 부착하고, 검증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소가 추가되었다고 환경친화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증거불충분”으로, 객관적으로 납득하고 인정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친환경이라고만 주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애매모호한 주장으로, 명확하지 않은 단어나 애매모호한 주장을 통해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환경성적을 언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성 없는 주장”은, 친환경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마치 관련성이 있도록 주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두가지 악 중 덜한 것”은, 범주가 전체적으로 환경적이지 않음에도, 그 범주에 있는 다른 제품보다는 조금 더 환경적이라는 이유로, 친환경을 주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점을 광고하여 환경적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테라초이스는 이 6가지 죄악에 더불어 2010년에는 허위라벨 부착을 추가하여, 총 7가지 내용을 그린워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제시하였다. “허위라벨 부착”은 인증이 명확하지 않고 그 효과성도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라벨을 부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 미국 FTC의 그린가이드 원칙



미국의 FTC(Federal Trade Commission, 연방거래위원회)는 그린가이드 원칙을 통해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그린가이드의 정확한 용어는 ‘친환경 마케팅주장에 대한 사용지침 검토(Guidelines for the Use of Environmental Marketing Claims)’으로, 1992년에 처음 공개되어, 몇번의 개정 끝에, 마지막 2012년에 현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그린가이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친환경적 마케팅 주장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 ▶소비자가 특정 주장을 해석하는 방법 및 마케터가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방법, ▶소비자를 속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케터가 자신의 주장을 검증할 방법. 그린가이드에서 제시한 마케팅 주장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자격 및 정보 공개”로 기만적인 표시광고 주장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고 눈에 띄며 이해하게 하라는 내용이고, 두번째로는 “제품, 포장, 서비스의 이점 구분”으로, 해당 이점(혜택)이 제품에 있는지, 포장에 있는지, 명확하게 기재하라는 내용이다. 세번째로는 “환경속성의 과장”으로, 기술적으로는 사실이라도 환경적 이점이 없는 것들에 대한 과장을 금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교주장”으로, 비교주장하게 되는 경우, 비교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 • 프랑스 - 그린워싱 유죄 홍보캠페인 비용의 80%까지 벌금부과

이전에 가이드라인과 규제들은 “광고 및 마케팅”에 대한 규제와 가이드라인 성격이 강했다면, 프랑스는 ‘기후변화와 복원

력(resilience)에 관한 소비자 코드리뷰라는 법안에 따라, 그린워싱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린워싱으로 유죄를 받게 될 경우 허위 홍보캠페인 비용의 8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언론이나 광고판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회사 웹사이트에 30일간의 해명자료를 게재하도록 하는 등 상당히 강력한 규제안이 발의되었는데, 해당 법은 49대10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한다. 이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는 프랑스 상법에서 해당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점은, 앞으로도 그린워싱에 대한 제재 및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 2-2. 한국판 그린워싱 근절 조치

캐나다, 미국, 프랑스의 그린워싱 규제 외에도 영국, 노르웨이에서도 그린워싱 규제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앞서 언급된 나라의 그린워싱 규제의 대부분이 (위에서 언급한) 친환경과 관련된 표시광고 규제에서 시작되었듯이, 한국 역시 그린워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나 법률 규제는 표시광고 규제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한국의 그린워싱 방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제정한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이다.

### • 환경부 -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해당 고시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 방법을 규정한 기본원칙과 표시·광고 적법 여부의 판단세칙,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해당 고시 제5조에서는 환경성 표시 광고의 기본원칙으로 진실성, 표현의 명확성, 대상의 구체성, 환경성 개선의 상당성, 환경성 개선의 자발성, 정보의 완전성, 제품과의 관련성, 실증가능성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추가로 해당 고시에는 환경성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 위반시 과징금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 환경성 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 방침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 공정거래위원회 -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두번째 그린워싱 방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환

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살펴볼 수 있다. 해당 심사지침에서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된 표시·광고에 대해, 일반원칙과 세부지침을 바탕으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지침에서 제시하는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진실성(표시·광고의 내용과 표현 및 방법이 사실에 근거하고 명료·정확해야 함) ▶상당성(환경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전체적으로 적절한 표현과 수단을 통하여 제시되어야 함) ▶실증성(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최신의 근거에 바탕되어야 함) ▶대상의 특정: (표시·광고 대상이 제품이나 포장 중 어디에 관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며, 만약 그것이 제품이나 포장의 전체가 아닌 일부분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일부분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특정해야함) ▶비교광고(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비교하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는 그 비교의 내용, 근거, 비교시점, 비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하여야 함) ▶광범위한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표현 그 자체로 해석이 가능한 모든 경우에 항상 사실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함)

<b>진실성</b>
표시·광고의 내용과 표현 및 방법이 사실에 근거하고 명료·정확해야 함
<b>상당성</b>
환경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전체적으로 적절한 표현과 수단을 통하여 제시되어야 함
<b>실증성</b>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최신의 근거가 바탕이 되어야 함
<b>대상의 특정</b>
표시·광고 대상이 제품이나 포장중 어디에 관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함
<b>비교광고</b>
환경적 속성을 비교하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는 그 비교의 내용, 근거, 비교시점, 비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하여야 함

또한 이에 대한 세부지침으로, 1. 사업자 자신에 관한 환경 관련 표시·광고, 2. 특정용어 및 표현의 사용, 3. 환경마크 등의 사용, 4. 표시·광고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지침에는 예시가 기재할 만큼, 그 지침의 내용이 꽤나 상세하고 실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 공정위는 행정예고(2023년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를 통해 위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수 개월내로 법안이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지침은 친환경 표시·광고시 표현이나 방법이 명확해야 한다는 '명확성 원칙'과 중요사실을 누락·은폐·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완전성 원칙'을 추가하였다. 또한 환경 관련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부당 광고를 판단하는 심사 원칙과 법 위반 유형별 예시를 담은 지침을 마련하였고,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셀프 체크리스트도 제정하였다.

## 참고문헌

---

1.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선 연구 최종보고서.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 22-06. 김민아, 김재영 연구원)
  2. KCGS Report 제13권 3호(제159호). (한국ESG기준원)
- 

## 3. 결론

ESG 경영 실천에서 투명성과 진실성은 ESG경영의 수단이자, 목적이다. 투명성과 진실성을 갖춘 ESG 경영은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고, 성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성과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그린워싱 방지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정부에서도 그린워싱 근절을 위해 강력한 규제와 법적 책임, 투명한 보고 체계의 강화, 독립적인 제3자의 검증과 평가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역시 기업의 친환경적 행위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명확한 환경성과가 있었는지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투명하고 진실한 ESG 실천을 통해 신뢰가 증진되고, 이러한 신뢰의 대가로, 기업은 이를 적절히 보상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우리 모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국내외 주요 ESG 뉴스



지속가능경영원

ISSB ESG공시 기준 최종안이 발표되면서 전세계적으로 ESG 제도화 흐름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수출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려하여 규제보다는 주요국 ESG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순환경제 육성과 같은 기업의 ESG경영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ESG경영 수준을 높이고 글로벌 ESG제도화에 대응해야겠습니다.

## 해외 ESG 뉴스

### ISSB 공시 표준 최종안 발표... 상호운용성 고려해 용어만 미세조정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6773>)

임팩트온 | 2023. 06. 28.

### 미 공화당, “7월은 ESG 공격의 달”... 기업들 ‘ESG’ 언급 급감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7>)

ESG경제 | 2023. 07. 10.

### 자발적 탄소시장 국제표준 공개... “기업 탄소 상쇄 주장 제대로 검증”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999>)

ESG경제 | 2023. 06. 29.

### 전 세계 공해의 생물 다양성 보전 위해 유엔이 나섰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2023/06/21/FN15WEBC7NEBPLZCD2ZMDDCHOQ/?utm\\_source=naver&utm\\_medium](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2023/06/21/FN15WEBC7NEBPLZCD2ZMDDCHOQ/?utm_source=naver&utm_medium))

조선일보 | 2023. 06. 21.

### EU 자연복원법, 의회 아슬아슬 통과... 최종단계 돌입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7>)

ESG경제 | 2023. 07. 13.

## 국내 ESG 뉴스

### K-순환경제 ‘CE9’프로젝트로 5800조 세계 시장 잡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62022074187625>)

머니투데이 | 2023. 06. 21.

### 대기업 사외이사 3명 중 1명은 법률·규제 분야 인사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8>)

ESG경제 | 2023. 07. 12.

### 폐자원 공급망 구축한다... ‘순환경제’, 신성장동력으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109200005922?did=NA>)

연합뉴스 | 2023. 06. 21.

### ESG 달성 못하면 이자 추가 지급... SLB 채권 최초 상장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71118475028705>)

머니투데이 | 2023. 07. 11.

### 공정위,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5개 기준 마련...‘지배력’ 중시한다

(<http://www.news1.kr/articles/5092601>)

뉴스 1 | 2023. 06. 29.



# ESG 통계 지표

2023년 6월 20일 기준

## 1. ESG 금융

### (1)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종목 수

(단위 : 개)

	'22.11월	12월	'23.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녹색채권	212	212	213	215	221	227	231	249
사회적채권	1,069	1,070	1,083	1,103	1,138	1,164	1,201	1,246
지속가능채권	300	299	298	300	299	297	290	297

### (2)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 잔액

(단위 : 천억 원)

	'22.11월	12월	'23.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녹색채권	200	200	201	205	210	215	217	243
사회적채권	1,586	1,572	1,565	1,576	1,638	1,666	1,713	1,768
지속가능채권	213	213	213	213	212	211	214	217

## 2. ESG 평가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8	14	20	38	78	131	66

###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지배구조보고서	76	101	213	224	231	355	380

자료: KRX ESG 포털

## 3. 기타 통계

### RE100 참여 국내외 기업(기관) 누적 수 \* CF100 참여 기업 수: 121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국내	-	-	-	6	14	27	34
글로벌	101	141	204	269	335	393	414

자료: <https://www.there100.org/re100-members>

## 2023년 ESG 뉴스레터 이슈 주제

1월   공정전환(Just transition)의 동향과 시사점	7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국내외 가이드라인 및 정책
2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 기후 금융의 역할	8월   지속가능 정보공시의무화와 제3자 인증의 신뢰성
3월   탄소배출 MRV(측정·보고·검증) 분야의 성장과 그 의미	9월   TCFD 개요 및 적용 현황
4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산업계 영향	10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현황
5월   EU 탄소중립산업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11월   ESG기업공시 의무화 현황과 대응방안
6월   지속가능금융 현황 및 발전 과제	12월   생물다양성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및 문의처 \* 지속가능경영원

###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국내외 가이드라인 및 정책

권우혁 연구원  
T. (02)6050-3474 | E. whk@korcham.net

### 국내외 주요 ESG 뉴스

권우혁 연구원  
T. (02)6050-3474 | E. whk@korcham.net

### ESG 통계 지표

권우혁 연구원  
T. (02)6050-3474 | E. whk@korcham.net